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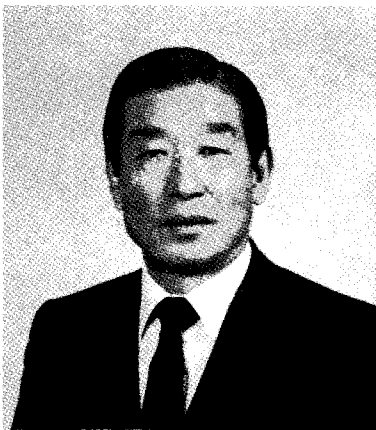
第 4 回 에너지 經營人 懇談會

에너지 · 資源의 國際協力 戰略

- 共產圈을 中心으로 -

李 宣 基

大韓貿易振興公社 社長



韓國에너지協議會는 지난 8月9日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4회 에너지經營人懇談會를 개최 하였는데 160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演士로 초청된 大韓貿易振興公社 李宣基사장은 共產圈을 中心으로한 에너지·資源의 國際協力戰略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다. 다음에 그 演說 全文을 소개한다.

여러분!

오늘아침 이렇게 에너지分野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共產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資源 協力에 대해서 다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선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動力資源部 李鳳瑞 長官님, 에너지 協議會 安秉華 會長님, 그리고 에너지 協議會 소속 有關機關과 會員社代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序 言

本人은 과거 動力資源部 長官으로 在職하면서 에너지部門 政策을 수립하고, 執行하는데 나름대로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國際적으로 石油價가 치솟고 있었던터라 石油 輸入에 따른 國際收支 赤字 壓力이 經濟 全部門에 物價昂騰 壓力으로 連結되어 상당히 어려웠던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環境은 크게 改善되어 石油價는 배럴당 17불대의 安定時代로 접어들었고, 에너지에 대한 政策도 에너지 資源의 需給安定 側面과 市場機能을 적절히 調和시키는 段階로까지 發展되고 있으며, 에너지에 대한 國民的 關心과 理解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環境變化는 물론 國際原油價 下落이라는 外部的 與件도 主要因으로 작용하였겠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에 關係되시는 여러분들이 各分野 別로 맡은바 職務를 獻身의으로 推進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다시한번 에너지 一線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께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가 食糧, 武器와 함께 地球上的 어떤 國家를 막론하고, 國家戰略의인 側面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 共產圈 國家의 경우에도 그 例外는 아니며, 모든 資源의 調達과 配分을 中央政府의 事前 計劃下에

推進하고 있는 社會主義 國家의 경우 資源과 에너지에 대한 國家統制는 資本主義 國家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側面에서 우리나라가 向後 에너지 및 資源의 安定的 供給이라는 次元에서 이들 社會主義 國家와의 資源과 에너지 交流를 어떠한 方向에서 推進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北方 交流의 背景

에너지와 資源交流에 관해 言及하기전에 현재 6 共和國 출범 이후에 우리 社會는 北方外交, 對 社會主義 國家交易 등에 있어서 하나의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本人이 봉직하고 있는 KOTRA도 이러한 轉換期를 선도해 나가는데 一助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共產圈과의 經濟交流의 背景과 지금까지의 推進現況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선 蘇聯, 東歐, 中國 등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經濟交流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東西和解의 新데탕트, 國際政治 環境의 多元化, 多角化 趨勢등에 편승, 이들 지역국가들이 經濟改革과 開放을 推進하는 과정에서 韓國을 協力對象國家로 판단, '8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와의 經濟關係 改善에 積極的인 姿勢로 轉換하여 왔습니다.

우리 政府도 6共和國 이후 韓半島 平和基盤 定着을 위한 政策의 一環으로 北方地域 國家와의 經濟交流에서부터 窮極的인 關係改善을 段階的으로 추진하기 위해 對 社會主義 國家 經濟交流 開放을 擴大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소위 北方政策과 社會主義 國家의 對 韓國 接近이 상호 接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社會主義圈 國家들의 입장에서는 韓國이 비교적 짧은 기간중에 驚異的인 經濟開發을 수행한 점을 감안, 우리나라의 資本, 技術 그리고 經營 Know-How 등을 습득함으로써 自國의 經濟改革에 활용한다는 實利主義가 깊이 간여되어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政治 關係 改善이라는 終局의 目標은 차치하고라도 新市場 確保와 市場多變化

對象地域으로서, 그리고 오늘의 主題가 되고 있는 에너지 및 資源의 安定的 確保를 위한 輸入先 多變化 對象地域으로서 이들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交流를 활용한다는 經濟的 利害關係가 또한 내재되어 있음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經濟交流現況

이러한 背景下에 推進되고 있는 對共產圈 經濟交流는 '70年代는 우리나라 측에서 적극적으로 東歐圈 博覽會에 참가한다든지, 間接交易 可能性을 타진한다든지 하여 간헐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하나의 分岐點으로 하여 共產圈쪽에서 對韓 接近을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 화하고 있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經濟交流는 저희 KOTRA가 하나의 經濟交流窓口로서 東歐圈 5개 國家와 貿易事務所를 설치, 앞으로 交流의 基盤을 조성한데 그 意義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實質的인 交易과 產業協力 등 經濟交流는 아직도 극히 制限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貿易收支 -

貿易面에서 작년도 우리나라는 蘇聯, 東歐, 中國 등 社會主義 國家에 20억불을 수출하고, 이들 國家들로부터 약 17억불을 輸入함으로써 600억불대의 전체 輸出入 규모에 비해서는 3% 이내에 머물고 있으며, 그나마도 對 中國 交易이 全體社會主義 國家와의 交易額의 86%에 이르고 있어 中國을 제외한 社會主義 國家와의 交易은 극히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中國과 東歐, 蘇聯 등 대부분의 國家와 우리나라 銀行間에 換去來 協定이 이제는 거의 체결되어 있어 信用狀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됨으로써 향후 활발한 直交易 與件은 完備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共產圈 國家와의 交易額은 꾸준히 증가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合作投資 -

合作投資는 현재까지 中國에 총 13건, 3천만불

정도가 投資되었거나, 投資가 認可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재까지 商談중에 있거나 우리 政府의 許可를 신청중에 있는 실정이며, 中國의 경우 冷藏庫, 피아노, 텐트, 텔레비전, 봉제완구 등 製造와 水産業, 食堂經營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蘇聯과 東歐의 경우에는 毛皮生産과 호텔, 金融業 進出이 이미 契約으로 연결되어 현재 該當企業體가 우리 政府의 최종 承認을 대기하고 있는 형편으로 이들 사업들이 승인될 경우 對 共產圈 投資規模는 1억 5천만불에 달하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海外投資 규모의 약 13%에 이를 전망입니다.

- 支社設置 -

우리 企業의 共產圈 地域內 支社設置는 '88년도 이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三星, 大宇, 金星社가 東歐圈 地域 1~4개소에 이미 支社를 設置하고 있고, 中國에는 斗山産業 등 7개사가 현지 合作法人子會社 형태로 진출해 있는 실정입니다.

共產圈 地域 國營貿易工團의 韓國內 支社設置도 계속 늘어나 현재 형가리, 폴란드로부터 각각 1개 業體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고, 체코, 中國 등으로 부터의 1~2개사 정도가 금년내에 支社를 設置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經濟人 交流 -

이상 共產圈 國家와의 經濟交流 現況을 살펴 보았습니다만 향후 이들 地域國家와의 經濟協力을 加速化 하기위한 지렛대로서 經濟人 交流가 최근에 와서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共產圈 國家를 방문한 우리나라 經濟人은 총 5천8백86명으로 '87년도에 비해 무려 13배 정도 增加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訪問한 共產圈 人士도 '87년도의 135명에 비해 5배 가량 增加한 647명으로 增加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활발한 經濟交流를 豫告해주고 있는 좋은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 資源交流 -

이상과 같은 背景하에 오늘의 主題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對 社會主義 國家 資源交易現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中國, 蘇聯 등 社會主義 國家로부터 石炭, 石油, 기타 鑛物資源 등의 輸入은 '87년도 대비 무려 88%가 증가한 약 3억3,000만불로서 우리나라의 對 共產圈 總輸入額 17억불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資源輸入이 對 共產圈 輸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輸入額은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資源 輸入規模인 54억불중 약 6% 정도로서 아직은 對 共產圈 에너지 資源 依存度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輸入對象國別로는 中國이 2억6,000만불로서 對 共產圈 全體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蘇聯이 20% 수준인 6,500만불을 보였고, 나머지 2%인 900만불 정도가 대 베트남 및 對 北韓 輸入 實績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資源別로는 有煙炭이 368만톤에 1억4,000만불로서 이 중 中國으로부터 253만톤, 蘇聯으로부터 115만톤이 각각 輸入되었으며, 原油는 中國으로부터 344만 배럴로서 3,930만불 정도 輸入되었고, 石油 製品은 中國으로부터 導入物量 173만 배럴 등 총 186만 배럴에 약 3,720만불 정도 輸入된 바 있습니다.

그밖에 無煙炭과 塊炭은 中國으로부터 108만톤, 蘇聯으로부터 24만톤, 그리고 베트남 등으로부터 21만톤 도합 153만톤이 導入된 바 있으며, 金額規模는 약 6,800만불정도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에너지 및 資源의 輸入量을 西方圈으로부터의 輸入量과 비교할 때, 有煙炭의 경우 物量 基準으로 對 西方 輸入의 20%, 原油는 1.3%, 石油 製品은 4.6%로서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無煙炭의 경우 對 西方 輸入實績 117만톤에 비해 共產圈으로부터는 153만톤이 導入됨으로서 對 西方 輸入實績보다 크게 上廻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에너지 需給現況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 共產圈 에너지 資源交流는 中國과 蘇聯 2大 資源大國으로부터의 輸入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들 2개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은

自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2개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이 에너지와 資源分野에서 어떠한 政策基調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 需給事情이 어떠한지를 우리나라의 協力可能性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 中國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中共은 社會主義 國家중에서 우리나라와의 交易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88년도의 경우 美國, 日本, 西獨, 香港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제5위 交易對象國이었으며, 中國측으로서도 全體輸出入의 약 15%를 우리나라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韓·中 經濟交流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中國은 1949년 中共 政權 創立이래 에너지 開發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제7차 5개년 經濟開發 計劃期間이 끝나는 내년도까지 총 425억달러를 石炭, 石油, 가스 및 電力産業에 投資하여 石炭 生産目標 年間 10억톤, 石油生産 目標 年間 1억 5,000만톤을 達成할 計劃을 推進중으로 있으나, 최근 급속한 開放政策을 추진한 결과, 産業發展의 速度가 目標値를 超過하고 있는데다 輸送문제, 流通構造上的 問題, 低生産性 등으로 현재 中國의 3분의 1에 달하는 産業生産 施設이 에너지 부족으로 제대로 稼動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 不足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中國의 에너지 政策은 풍부하게 埋藏되어 있는 石炭과 가스생산을 증대하여 國內의 代替用 에너지로 活用하고 石油은 主要外貨獲得源으로 간주하여 輸出에 置重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中國 産業生産 施設의 약 1/3이 에너지 不足으로 제대로 稼動을 못하고 있는 것은 石炭이 發電 燃料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石炭 供給自體가 부족하거나 電力不足으로 이어져 이러한 결과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世界 第3位の 石炭埋藏國으로서 石炭供給이 需要에 못미치고 있는 奇形의인 현상은 石炭 需給의 科學的인 관리기법이 아직도 부족한데다 新鉦 炭 鑛開發과 石炭施設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히 石炭生産地와 消費地를 연결하는 輸送網이 잘 갖추어져 있지않기 때문인데, 현재 中國政府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外國資本과 技術을 하나하나 導入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石油資源側面에서는 지난 1960년도에 불과 연산 10만톤의 生産에 불과하였던것이 '88년도에는 1억3,700만톤을 生産, 그중 外國으로 輸出하여 얻은 石油販賣 收入額만도 45억불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한 分野로서 國內 휘발유 消費增加와 國際 유가 弱勢로 인한 石油輸出額 減少등의 영향으로 輕質 石油類 輸入國으로 반전되고 있는것이 최근의 상황입니다.

현재 中國政府는 輕質製品 需要增大에 대처하기 위하여 精유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海洋石油開發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海洋石油開發에 참여하는 外國企業이 탐사 제1단계에서 우선 물리 探查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契約終了 또는 굴착여부를 決定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優待措置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現在까지 美國, 日本, 이태리 등 12개 국가가 이미 39건의 合作開發契約를 締結, 그중 3개소에서는 이미 생산을 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中國의 石油産業과 관련, 짚고 넘어갈 사실은 中國의 '83년 이후 石油輸出國이 되었으나, 매년 一定量의 原油와 精製製品을 每年 輸入하고 있다는 점과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不足한데도 원유를 輸出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선 原油輸入은 社會主義 國家間 求償貿易에 의해 中國産 製品과 구상으로 他國으로부터 原油를 輸入하는 경우이거나 연안정유 공장의 정유처리 施設規模가 國內 原油 供給을 초과하여 施設의 계속적인 稼動을 유지하기 위해 輸入하는 경우도 보이며, 原油輸出은 經濟改革에 필요한 機械, 裝備 및 技術의 導入을 위한 外貨獲得을 위해서 國內 에너지 不足 狀況에서도 每年 일정한 水準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國際油價의 下落등의 영향으로 '85년을 고비로 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 産業은 中國政府가 최근에 관심을 가

지고 앞으로 에너지 需要增加에 대비, 타 에너지에 우선하여 生産을 증대할 분야로서 이를 위해 石炭 가스化 工場설립, 河南油田-北京間 파이프라인 供給網 建設, LPG 回收設備 設置 등을 外國資本, 技術導入을 통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中國의 에너지 사정은 石炭, 石油, 가스 3개 부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中國은 에너지 生産量이 豊富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絶對額面에서 많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經濟開放과 개혁에 따른 에너지 需要增大에 비해 공급이 오히려 부족한 에너지 貧國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數世紀間 에너지관련 科學技術은 中國 政府의 적극적 開發政策에 힘입어 지금은 이미 國際水準에 도달하였거나, 곧 도달할 정도로 크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對外開放을 적극화해 온 지난 10년간 지금까지 中國이 에너지 關聯技術과 裝備 14,000여종을 外國으로부터 購買하는데 100억불 이상의 國家豫算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中國이 에너지 부문정책을 中國 經濟改革에 核心課題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할 것입니다.

- 소 련 -

다음은 蘇聯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아시피 蘇聯은 지난 '85년 고르바초프 書記長 執權以來 소위 페레스트로이카(改革)와 글라스노스트(開放)政策을 加速화해 오고 있으며, 특히 '88년 9월에는 크라스노야르스크 宣言을 통해 시베리아와 極東地方 開發에 韓國의 參與 可能性을 示唆한 바 있고, 최근 저희 公社가 蘇聯의 首都 모스크바에서 大韓民國 週間行事를 가짐으로써 韓·蘇 經協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蘇聯은 石油資源에 관한한 世界 第1位の 産油國으로 '87년도의 경우 中國의 産油量에 비해 5배 規模인 6억2,500만톤의 原油를 生産, 그중 약 30%인 360억달러정도 規模는 輸出하고 있는데, 輸出의 약 2/3는 COMECON 國家등 社會主義 國家에 國家清算貿易 方式으로 工產品 등을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이지역 經濟의 礎를 쥐고 있는 실정입니다.

天然가스 또한 世界 第3位 保有國으로 年間生産 5억7,000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약 13%인 7,500만톤, 金額으로는 약100억불 규모를 海外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 또한 COMECON 諸國에 양도성 rubble에 의한 國家間 청산협정 方式으로 輸出하는 것이 총 천연가스 수출의 약 70%를 점하고 있어 蘇聯의 對 東歐 戰略의 一環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石炭은 世界 總 埋藏量의 1/4인 7조톤 정도가 시베리아 地域을 中心으로 埋藏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88년도의 경우 총 3억5천만톤을 생산, 대부분은 國內 消費에 充당하고, 약 35% 정도가 日本, 韓國 등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1920년대이래 蘇聯은 電力産業에 막대한 投資를 한 결과, 原子力 發電 및 電力 송출분야에서 광범위한 Know-How 축적, '87년도에는 中國의 약 3배에 이르는 1조7천억 Kwh의 電力을 생산함으로써 美國에 이어 제2위 電力 生産國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러한 蘇聯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蘇聯은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직면, 潛在力이 풍부한 시베리아와 極동의 電源開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蘇聯의 에너지 産業現況을 살펴보았습니다만, 蘇聯은 에너지를 自體的으로 解決하고 있으며 그 여력은 輸出에 할애, 전체 蘇聯의 外貨獲得額중 에너지가 약 6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蘇聯 경제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蘇聯은 國際油價 下落에 따른 石油輸出額 減少를 억제하기 위해 新規油田開發과 기존 유전 시설의 개수 등을 推進하는 한편 石油 輸出市場 多邊化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와 原子力 中心의 에너지 構造를 확립한다는 방침하에 가스개발면에서는 시베리아 지역의 가스田 地帶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동시에 原子力 部門에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輸送網도 계속 擴充하고 있으며, 특히 체르노빌 原電사고 이후 蘇聯내에 확산되고 있는 원전 建設반대 輿論을 감안, 大都市와 河川이외의 지역에 原子力 安定對策을 고려하여 原子力 發電所 建設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總 發電量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原電部門의

비중이 향후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協力推進 方向

이상 中國과 蘇聯을 중심으로 에너지 産業現況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음은 에너지 資源分野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들 共產圈 國家와 協力を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 나름대로 소견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 合作開發 —

우선 '70년대에 두번에 걸쳐 世界經濟에 충격을 준 石油波動을 겪으면서 資源의 共同開發에 대한 인식이 社會主義 國家내부에서 부터 변화하기 시작, 이제는 西方國家들과 共產圈 國家들간의 資源의 共同開發論議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감안, 우리도 이러한 資源開發側面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랜 領土紛爭에 휘말려 거론조차 유보해왔던 海底油田 發掘을 위한 共同投資가 현재 西方各國과 中國간에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資源의 단순한 輸入의 경우보다 共同投資에 의한 開發輸入이 長期的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資源 依存國家의 경우 資源의 安定的인 供給先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韓·中間에 海南島, 西海 大陸棚을 대상으로 한 油田 合作開發事業이 協商中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分野는 정부나 業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石油시추, 探査, 石炭鑛 굴착 등의 技術이 아직은 英國, 美國등에 비해 劣位에 있기 때문에 이 分野에 Know-How를 가지고 있는 先進國 租讓圈 保有業體등과의 協力を 통해서 참가하는 것이 投資 리스크를 分散하고, 共產圈의 政策變化로 인한 投資損失을 極小化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단 資源開發 分野뿐 아니라 에너지 관련 合作工場 建設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蘇聯, 中國 등 현재 에너지 節約 産業機 資材 開發 技術導入 등에 상당한 關心을 가지고 있어 이런 分野의 合作投資도 고려해볼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나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일러 業界先頭走者인 (株) 로보트 보일러가 中國에서 合作提議 등 좋은 反應을 받은것은 앞으로 對 中國 에너지 節約 관련 機資材의 輸出 또는 合作進出 등에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봅니다.

— 西方企業과 컨소시엄 —

두번째로는 西方企業과 컨소시엄을 형성, 에너지 관련 事業에 進出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야 될 分野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금년초에 캐나다의 밥콕스 윌콕스사가 日本의 丸紅社와 이같은 方式으로 中國 浙江省 등 2개 地域에 發電所用 스팀 보일러 工場進出契約을 한 것은 電力 플랜트 部門에서 日本企業이 外國企業과 컨소시엄을 형성, 진출하게된 최초의 事例라는데서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長期契約 —

세번째로는 原油 輸入市場 多邊化를 위해 그동안 우리 政府와 業界에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현재 中國產 原油를 長期 供給方式에 의해 中東地域產 原油보다 싼값으로, 그것도 中東地域에 비해 運送費의 1/4 수준으로 導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長期契約에 의한 原油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中國產 原油의 質加工 形態 輸出도 관심을 가져야 될 分野로 생각됩니다.

— 産業協力 —

네번째로는 中國, 蘇聯의 에너지 관련산업 開發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建設進出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輸入을 연계시키는 産業協力活動部門입니다. 아시다시피 蘇聯은 시베리아 및 極東 地域의 資源

開發과 이 地域의 工業基盤 擴充에 全力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협력도 여러차례 제의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蘇聯은 日本과 지난 '67년 소위 'KS' 協定을 필두로 하여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끌어들여 資源開發, 파이프라인 建設, 港灣建設, 鐵道建設 등에 활용하기위해 수차례의 協商이 진행되었으나, 經濟性 次元에서의 회의와 美國의 暗黙의 개입 등으로 蘇聯의 아프가니스탄 侵攻을 구실로 하여 결국 시베리아 開發 參與가 진전없이, 現在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蘇聯이 최근 韓國과의 經濟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이유로 그간 膠着狀態에 빠진 日本의 시베리아 開發參與를 유도하기 위해 韓國과의 協商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최근에 全經聯 使節團이 蘇聯을 방문한바 있습니다만, 蘇聯측의 이러한 기본의도를 염두에 두고 실현 가능한 事業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시베리아권의 풍부한 資源을 確保하는데 一助가 되리라고 確信합니다만, 國家的 見地에서 極東地域 安保位相 次元에서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베리아 資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는 長期的 眼目에서 검토하고, 우선 蘇聯측이 이지역에 誘致하고자 하는 輕工業 製造工場 設立에 우리 企業이 合作으로 進出하면서 企業活動의 投資收益을 石油, 石炭 등으로 공급받는 것을 蘇聯측으로부터사전에 보장받아 추진해 봄직 합니다.

- 情報蒐集 · 人的交流 -

다섯번째, 共產圈 國家와의 에너지 部門의 協力を 위한 人的交流와 情報蒐集에 앞으로는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蘇聯, 中國 등에서 개최하는 에너지 관련 展示會에 우리 企業들이 자주 참가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節約機資材展 등에 共產圈 側 有關人士를 誘致하고, 에너지 관련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使節團을 교환하는 등 人的交流를 촉진함으로써 이분야에서의 交流基盤을 다져나가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저희 KOTRA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만, 貿易事務所 活動을 통하여 에너지 分野 情報를 수시로 蒐集, 政府 및 業界에 제공함으로써 共產圈 에너지 産業動向에 대한 精確한 情報를 바탕으로 協力方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考慮되어야 할 事項

이상 우리나라의 對 共產圈 에너지 資源協力 方案에 대해 概略的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 현재 共產圈에 진행중인 改革과 開放이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機會가 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겠습니다. 共產圈 國家의 이러한 改革과 開放이 流動的인 國內外 政治狀況으로 언제, 어떻게 변화할 지 모르고, 지금은 改革과 開放의 初創期이기 때문에 우리 企業이 성급하게 진출하기에는 法的, 制度的인 면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長期的인 眼目에서 內實있는 關係形成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될 것입니다.

특히, 에너지와 資源部門의 경우 國際情勢의 변동에 따라, 그리고 國家間의 利害關係가 敏感하게 얽혀있다는 것은 1978년 美國의 카터정권이 蘇聯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軍事介入과 폴란드에서의 戒嚴令 布告를 이유로 石油, 天然가스 生産設備 輸出을 금지 시켰다가 '85년도 고르바초프 執權以後 兩國關係가 개선됨에 따라 '87년 1월부터 禁輸措置가 解除된 事例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美國과 蘇聯의 世界戰略이 깊어 개입되어있는 부문이기도 한 에너지, 資源分野의 交流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될 입장은 終局的으로 政治, 經濟 등 우리나라의 國家利益에 合致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美國 등 우방국가와 世界戰略的 利害關係와도 상충이 되지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側面에서는 共產圈 國家와의 에너지, 그리고 資源協力에서 고려해야될 점으로 이들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에너지와 資源을 지나치게 依存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國家安保의 影響입니다.

또한 實務的으로 에너지 資源分野의 合作開發이나 合作投資와 관련, 깊고 넘어가야할 事項으로서는 中國, 蘇聯 등의 外國人 合作投資 誘致政策이 이제 막 시작단계로서 關聯制度가 完備되어 있지 않거나, 變更 可能性이 상존하고 있는데다 政府間 投資保障 協定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投資以後의 強制收用 또는 몰수의 危險에 대비할만한 安定裝置가 없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投資이후에 投資에 따른 果實을 原資材 형태나 硬貨形態로 지급을 보장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契約 당시에 신중히 고려되 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蘇聯의 경우 예를 들면, 投資進出을 했 다고 하더라도 勞動者를 위한 休息施設과 進入道 路建設 등이 投資進出 企業側에서 부담해야 함으로 항상 Extra 費用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밖에도 資本主義的 經營技法이 不足한 狀況에서 私企業의인 合作企業 誘致를 하고있어 自律的 經營이 어렵고, 특히, 銀行, 保險, 證券, 運送 등 支援 매카니즘이 확립되어있지 않아 經營上의 障礙要因 이 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클레임 발생시 公式的으로 해결할 窓

口가 없다든가 인프라스트럭처 自體가 未備되어 投資進出에 필요한 與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든가, 社會主義的 勤勞方式의 惰性에 젖은 工場 勞動者 들이 技術的 숙련도와 勤務意慾 자체가 낮다든가 하는 문제점은 常存하고 있는 것입니다.

結 言

結論的으로 말씀드리면, 共產圈 國家와의 에너지 및 資源協力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檢討하되, 순수한 經濟問題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南北韓關係 등 政治, 外交的 視角에서도 國益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 진해야 할 것이라는 前提下에 政府次元에서는 投 資保障協定 締結 등 安定裝置를 마련하는데 계속 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業界 次元에서는 國益을 염두에 두고 經濟性, 安定性을 適切히 調和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中國의 實用主義, 그리고 東歐圈 의 開放政策이 붓물터지듯이 新聞紙上을 요란하 게 장식하고 있는 요즈음일수록, 우리는 이들 共產圈 國家들이 社會主義 革命自體를 포기한 것은 아니 라는 사실입니다.

